

05

2024 KBS 파리 하계올림픽 중계방송 제작기



글. 정태수 KBS 중계기술국 영상감독



들어가면서

역대급 성적을 기록한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이 지난 8월 11일 폐막식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그 무대 뒤에는 한국에서 7시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노력한 Off-Tube 제작진들의 노고가 있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KBS는 파리 현지 OT 1개소, 서울 본사 Off-Tube 5개소 (TS-13 4개, RS-1 1개)를 운영하였고, 공식 종목 32개 중 27개 종목과 개·폐회식 수어 통역, 하이라이트 제작을 진행하였다. 제작진과 해설진의 넘치는 케미로 퇴근길에도 발길을 떼지 못했던 OT 스튜디오. 17일간의 여정을 아쉬움과 여운을 담아 제작기로 풀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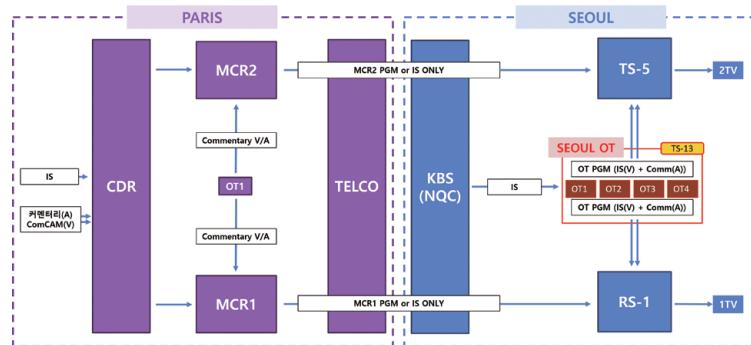
Off-Tube(OT)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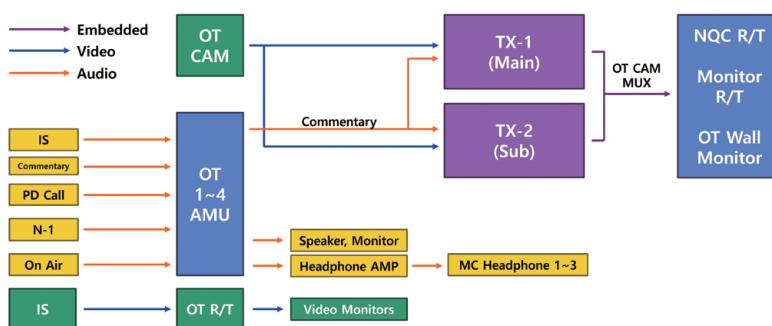
스포츠 중계방송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해설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 중계방송 화면을 보면서 중계방송을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줄임말로 OT라고 하고 반대 개념으로는 코멘터리(Commentary) 중계가 있다. OT 중계를 하는 이유는 대회별 상황이나 환경, 예산 등에 따라 다양한데, 제작진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OT의 규모와 운영 방식을 정하게 된다.

이전 대회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OT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이전 코로나 시기 종합대회에서는 중계 차고에서 OT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TS-13 스튜디오 내에 OT 부스가 설치되면서 KBS 사옥 내 방송 장비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었고, OT 접근성이나 공조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서 OT 근무자들의 편의가 개선되었다. 또한 해설위원과 기술진의 거리가 가까워 보다 세밀한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안정적인 중계가 가능했다. 이번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제작진들 사이에서는 과거 대회 OT 시설 중에 가장 좋은 환경이었다고 회자하고 있다.

전체 개요



서울 OFF-TUBE 1~4(TS-13) 세부 신호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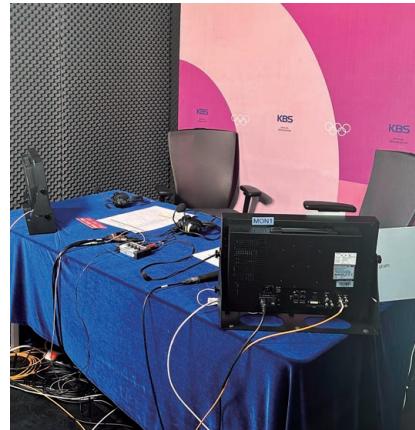
시스템 설계 및 운영

OT의 시스템은 최대한 간단하게 구성한다. 오퍼레이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최대한 줄여 트러블슈팅이 용이하도록 복잡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7개의 방송용 신호와 IP를 통한 4개의 모니터링용 화면을 받았다. 파리 현지 방송센터의 CDR과 MCR에서 보내준 IS 신호를 NQC에서 받아 OT 라우터에 수용하였다. 이 IS 신호들은 방송 제작에는 사용되지 않고 해설진이 해설하기 위한 화면으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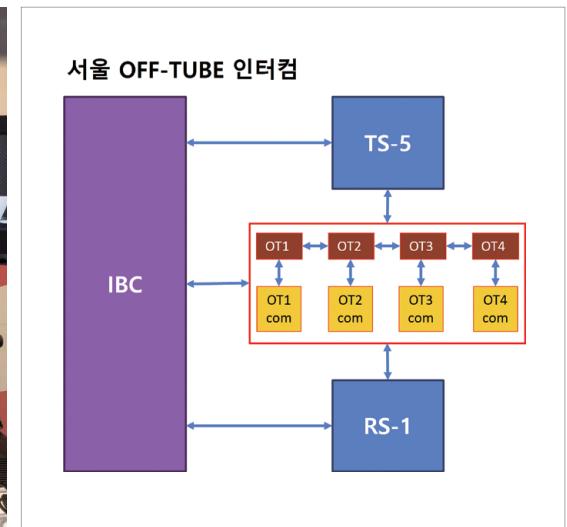


해설진 자리에는 2개의 모니터, 카메라(Commentary CAM, 이하 COM-CAM), 조명, 헤드셋 3개, 예비 마이크 1개, 노트북(INFO 확인용)이 설치된다. 이때 2개의 모니터에는 각각 현지에서 보내준 경기 영상(IS)과 ON-AIR를 보여주고, 해설진은 이 영상을 보면서 해설을 한다.

한국 선수의 경기 전 동시간에 진행되는 타 종목의 방송이 진행 중일 때, 대기 중인 해설진은 경쟁 선수의 경기를 모니터링한다. 이렇게 하면 해설진은 방송 전에 그동안의 경기 결과를 시청자에게 전달하면서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듯한 느낌도 연출할 수 있다.



COM-CAM은 해설진이 해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설치한다. 보통 경기 시작, 종료 혹은 하프타임에 뷰티샷과 함께 PIP 형식으로 방송 화면에 들어간다. 요즘에는 화제성을 모으기 위해 방송 화면과 비하인드컷을 속풀 형식으로 SNS에 공유하기도 한다. SNS팀이 중계 현장에 찾아와서 속풀 제작을 직접 하기도 하고, 방송에 나가지 않았지만 묻혀두기 아까운 장면을 모아 KBS 스포츠 채널에 업로드한다. 해설 위원들 중에서도 개인의 채널을 운영 중인 경우 VLOG 형식으로 제작되어 중계진과 OT 현장이 SNS에 공유되기도 하였다.



OT 스튜디오 외부에는 오디오 믹서, 마이크 프리앰프, 비디오 모니터 3개, 오디오 모니터, 인터컴 키패널, 라우터 리모트가 설치되었고, 기술감독 1명이 1개의 OT를 책임지고 믹싱을 하였다. 오디오 믹서는 OT 4개소 모두 YAMAHA社의 DM1000을 사용하였고, 비디오 모니터 3개에는 해설자가 보는 것과 동일한 화면 2개와 COM-CAM 모니터링용 1개를 설치하였다.

인터컴은 파리 방송센터, 1TV, 2TV 부조, 해설진과 소통하기 위한 페이징으로 구성하였다. 라우터의 소스는 파리에서 오는 IS, OT PGM, ON-AIR(1TV, 2TV), 부조 PGM, Multi Viewer 등이 있고, 타겟은 OT 별 모니터와 해설자 모니터로 구성하였다.

파리와 한국의 시차는 7시간으로 한국 시각 14:00 ~ 익일 06:00까지 경기가 진행되었다. 우리는 8명의 근무자가 A조(13:00 ~ 22:00), B조(21:00 ~ 익일 06:00)로 나누어 시차 교대근무를 하였고, 대회 중간에 근무조를 교대하였다.

제작 플로우

방송 전에는 모든 장비를 사전에 테스트해야 한다. 특히 헤드셋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음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교육이 필수적이다. 헤드셋 마이크의 방향과 위치, 볼륨 조절, 헤드셋 고장 시 SOP, 기침하는 방법, 발성 시 주의 사항, 수신호, 마이크 테스트 방법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방송 시간이 다가오면 각 스케줄에 맞는 해설진이 스튜디오를 잘 찾아왔는지 확인한다. 해설진의 헤드셋 착용 상태, 복장 상태를 확인하고 마이크 테스트를 요청하면 짧게는 몇 초에서 길게는 1분여 정도의 멘트

를 들어보면서 Input gain, COMP, EQ, 해설자 간 청감 밸런스를 조정하고, 페이징 소스 밸런스 체크 등을 한다. 해설진은 2~3명이 참여하게 되며, 성별과 연령, 목소리, 음색, 발성, 요구사항 등이 천차만별이다. 이를 잘 캐치해서 듣기 좋은 소리로 믹싱하는 것이 OT 기술감독의 가장 큰 역할이며 평가를 받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해설진에게 들려주는 페이징에 들어가는 소스는 OT PGM, ON-AIR, N-1, PD CALL, IS가 있다. OT PGM은 항상 들을 수 있게 하고, 상황에 따라 ON-AIR, N-1, IS 소스를 선택해 준다. 방송을 준비할 때는 IS를 들려주다가, 방송이 임박하면 ON-AIR를 들려주다가, 큐 사이언이 들어가면 N-1을 들려주어야 한다. 모든 소스 간에는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 감독 판단으로 맞춰놓은 다음 해설위원마다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에 맞추어 준다. 목소리를 크게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경기장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면 해설진이 경기를 보며 해설하는 동안 OT 감독은 해설진의 소리가 시청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경기를 같이 지켜보며 세심하게 오디오 믹서 컨트롤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작된 COM-CAM과 해설진의 Commentary 소스는 MUX 되어 각 1TV, 2TV 부조로 전달된다. 부조에서는 IS 현장음 + OT의 Commentary를 적절히 믹싱하고, 현장 IS 화면에 자막, PIP 화면, 광고 등을 삽입하여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생방송으로 내보낸다.

OT 기술감독은 눈과 귀가 항상 바빠야 한다. 오디오 믹싱 외에도 방송에 들어가기 전 해설진에게 보여주고 들려줄 소스를 각 방송 상황에 맞게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동시간대에 방송이 많아 다른 경기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 1TV에서 2TV로 전환되는 경우, 방송 5분 전에 예정에 없던 중계가 잡히는 경우 등 경기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여러 가지 비상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해설진에게 문제가 생긴 경우 사전에 약속을 해놓거나 경기 상황을 지켜보며 오디오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탁구의 정영식 해설위원은 초반에 목감기로 인해 기침이 심한 상황이 있었다. 심용우 OT 감독은 정영식 위원과 사전에 기침이 나올 때 양손을 들면 마이크를 OFF 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실제로 탁구 경기 초반

며칠 동안은 정영식 위원이 수많은 기침을 하였지만, 방송에서 티가 안 날 정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일도 있었다.

배드민턴 경기에서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감격스러운 순간 OT 스튜디오 역시 환호성으로 가득 찼었다. 당시 배드민턴 중계진 3명도 역시 방음 스튜디오를 뚫고 나오는 엄청난 성량을 자랑하며 오디오 믹서의 INPUT 한계치까지 레벨미터를 끌어올렸다. 담당 OT 감독은 배드민턴 금메달의 순간보다 오디오 품질에 영향이 갈까 프리앰프와 페이더 컨트롤에 집중하며 끝까지 책임지느라 경기가 언제 끝났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하프타임

이번 OT 스튜디오는 공조가 너무 잘되는 바람에 한여름에 추위와 싸워야 했다. 이렇게 우산과 담요로 바람을 막지 않으면 손, 발이 금방 얼어붙는다. 7시간의 시차와 여름과 겨울을 오가는 온도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몇몇 감독들은 대회 기간 중 심한 갑기에 걸리기도 하였다.

종합 스포츠 대회의 묘미는 바로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스케줄이다. 있다가 없어지면 쉬면 그만이지만, 없다가 생기면 긴장이 최고조가 된다. 실제로 방송 5분 전에 대기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해설위원 준비가 안 된 종목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는 일도 벌어지곤 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작진의 역량이 빛을 발하여 큰 문제 없이 넘어갔다. 그래서 OT의 모든 사람은 근무하는 동안은 항상 적당한 긴장감과 휴식 그 사이에 있었다.



이번 OT는 이전과 다르게 해설위원 대기실과 거리가 가까워 제작진과의 소통이 원활했다. 식사 시간이나 경기가 없을 때 나누었던 스몰 토크는 한없이 대기하는 지루한 시간을 날려주는 활력소가 되기도 하였다. 한때 세계 최고였던 선수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전성기 시절에 어느 정도였는지, 금메달 개수는 누가 제일 많은지, 상금 랭킹은 누가 1등인지 등 각종 낭설에 대한 팩트 체크와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아슬아슬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에 쓸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많았다. 복싱의 김광선 의원은 복싱에 관심이 있는 한 감독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며 현역 때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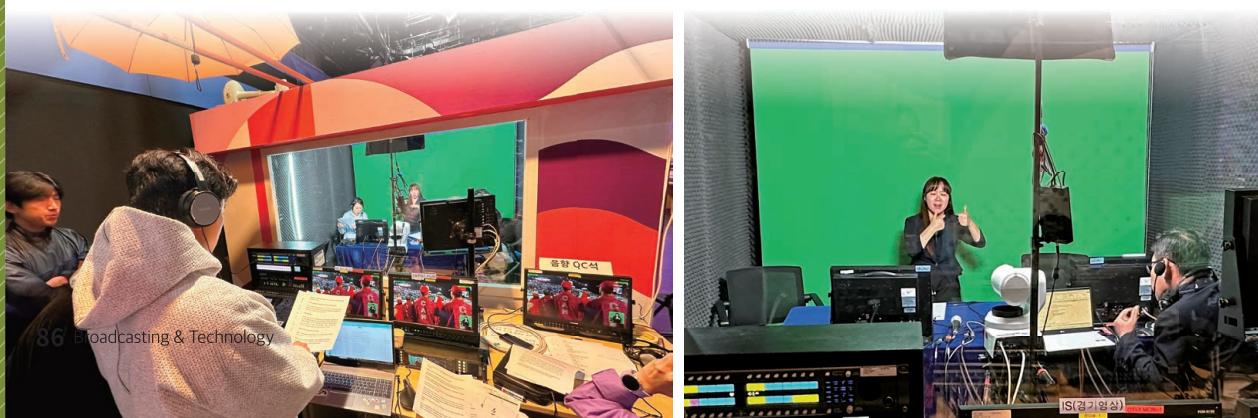


이들과 같이 방송을 제작한다는 것도 영광이지만 사진과 사인 요청에도 흔쾌히 응해 주셨다. 제작진은 각자 본인들이 취미로 하는 스포츠 용품을 가져와 사인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단기간에 레전드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 웃으며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그저 신기하기만 했고 오로지 중계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비록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출전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참가비 100원짜리 내기를 통해 흥미를 끌어올렸다. 올림픽 축구 결승전 프랑스 vs 스페인의 결과는 ‘문어 영표’라 불리던 이영표 위원도 맞추지 못할 만큼 예상 밖의 스코어인 5:3으로 아무도 맞추지 못했다. 내기에 참여한 모두가 두 손 모아 열심히 경기를 관람했다는 훈훈한 후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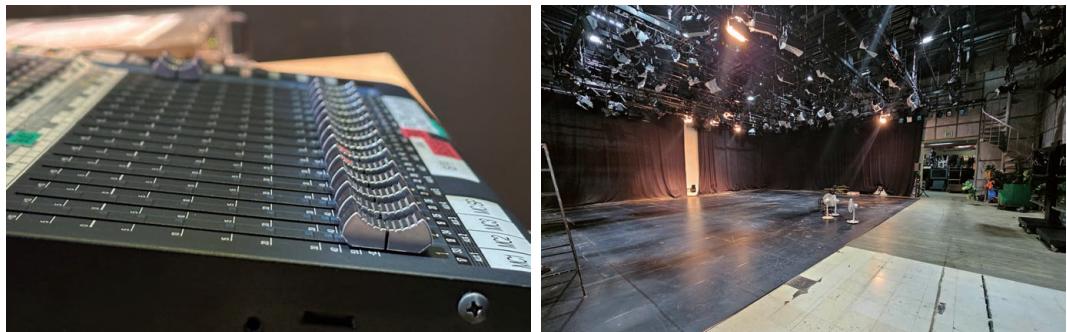
스페인	0	1	2	3	4
0	0	1	2	3	4
1	Lee	김동희	김동희	김동희	김동희
2	신재용	오늘(개인 기록)	김동희	김동희	김동희
3	김선우	나현중	정승관	정승관	정승관
4					

OT 감독들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맡아 덕업일치 중계를 맡기도 하였다. 정태수 감독은 유도와 클라이밍, 김일환·최지홍 감독은 축구, 강나인 감독은 배드민턴을 전담하였다. 그 스포츠를 많이 알수록 경기의 흐름이나 경기규칙, 해설진의 성향들을 잘 알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살릴 수 있었고, 경기 시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짧게 느껴져 근무의 피로감은 반감되곤 했었다.



개·폐막식 제작 당시 OT에서는 영어, 불어 통역 오디오와 수어 통역 화면을 제작하였다. 이번 개막식은 3시간이 넘게 진행되며 역대 가장 길었다고 한다. 수어 통역 선생님들에 의하면 이렇게 길게 하는 경우는 2명이 돌아가며 진행한다고 한다. 1시간 정도 쉴 새 없이 수어를 하고 나면 팔이 금방 지쳐서 교대로 진행 한다. 또한 206개국이 차례로 등장하는데, 수어로 모든 나라의 동작을 외울 수가 없어 카메라 앵글에 잡히지 않는 곳에서 수어를 미러링해 준다고 한다.

마치며



올림픽이 끝나고 한동안 시차 적응에 고생할 정도로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열정과 행복 가득했던 경험 이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사람들과 올림픽이라는 주제 하나로 희로애락을 나누며 추억을 만들고, 각자의 세상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전문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올림픽이 끝나고 불이 꺼진 스튜디오와 철거되는 무대를 지켜보면서 공허함이 밀려올 때면, 그만큼 ‘열정 가득했고 몰입했었구나’ 하며 반추해 본다. 행복했던 17일간의 기억을 간직한 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다음에 우리를 사로잡을 이벤트를 기다리며 아쉬움을 달래본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뜻깊은 경험을 갖게 해준 중계기술국 선배님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고, 사고 없이 대회를 잘 마쳐준 김동환, 원효민, 정하영, 최지홍, 강나인, 김일환, 박수향, 심용우 동료 감독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